

‘내란 주도’ 윤석열·한덕수 1심, 내년 1~2월 나온다

특검 수사·재판은?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첫 선고
윤석열, 23일 구속 연장 여부 결정…‘내란 우두머리’ 내년 2월 선고
추경호 국회 전 원내대표 오늘 구속 심사…박성재·이완규 등 수사 진행
김건희,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재판…내일 결심 공판·내년초 선고

12·3 내란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이들에 대한 재판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초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체포방해’ 등 혐의 등이다.

본안 사건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내년 1월 5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양측 최종진술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1개월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진행 중이며, 1일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심리 중이며, 내년 2월께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되며, 법원은 오는 23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관 등 국무위원들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하는 등 내란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았으며, 특검팀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관계자 중 가장 빠른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은 불법계엄을 모의, 기획하고 선포하며 선관위원 불법구금을 시도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금품을 받고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하는 등 특가법상알선수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광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중앙지법군사법원에서 심리 중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경호 국회 전 원내대표

이다. 국회,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 시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시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보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또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8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계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각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아 왔던 점에 대해 수사를 벌여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등 혐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며,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판검사 처벌 ‘법 외곽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외곽죄’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외곽죄) 등을 의결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불공정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위 진행 중 퇴장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

특검 수사 기한 각각 14·28일 만료…이달말까지 사건 순차 인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했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

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우선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

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의혹이다. 나아가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